

하가유적 문화자산 가치 조명

임실문화원, 학술대회 열어... '임실 역사 중기구석기부터 시작' 입증

임실문화원(원장 최성미)은 23일 대강당에서, 한국구석기학회, 조선대학교 박물관과 함께 '임실 하가유적의 문화자산 가치와 활용 방안'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학술대회에는 개회식, 주제발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기초강연은 유석호 호남문화재연구원장이 '전라북도 역사의 뿌리와 임실 하가유적'이란 주제로 포문을 열었다.

사가와 마사토시 동북학원대학교 교수는 임실하가유적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이기길 조선대 교수는 임실 하가유적의 학술조사와 의의에 대해, 신희권 서울시립대 교수는 임실하가유적의 가치와 보존 및 활용방안에 대해, 이한용 전북선사박물관장은 문화자산의 활용과 가치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은 유종운 한국선사문화연구원장이 맡은 가운데, 토론자는 유철 전주문화연구원장,

이민석 정읍시립박물관 학예실장, 이창승 호남문화재연구원 책임조사원, 서인선 연세대 강사, 오타니 카오로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책임조사원이 토론을 이어갔다.

하가유적은 구석기시대 연구의 불모지였던 전북지역에서 조선대 박물관의 지표조사로 2000년에 처음 발견됐다. 조선대 박물관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다섯 차례의 학술발굴을 진행하여 중기와 후기구석기시대 문화층, 신석기시대 문화층, 삼국시대 문화층이 차례로 남아있음을 밝혀냈다.

이로써 임실군과 전라북도의 역사가 늦어도 중기구석기시대부터 시작되었음이 처음으로 입증됐다. 하가유적은 구석기시대의 지형이 잘 보존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문화층의 규모가 10만㎡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규모이고, 많은 석기제작소를 비롯하여 2만7천여 점의 유물이 출토하여 구석기시대의 풍부한 문화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일본열도에서 보고된 각추상석기(모뿔석기)와 나이프형석기도 발견되어 구석기시대에 일본열도와의 문화교류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학술자료로 평가된다.

현재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석장리유적, 전곡리유적, 수양개유적, 월평유적과 비교해 조금도 손색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유적의 탁 트인 경관은 탐방객들에게 호쾌한 인상을 선사한다.

개회식에 참석한 심민 군수는 "하가유적에 관한 오늘의 학술대회가 임실군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갖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건강한 임실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미 문화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임실 하가유적의 학술 및 문화자산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이를 바탕으로 유적의 보존과 활용에 있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 농기계 작업단 본격 운영

군, 4월 2일부터... 삶의 질 향상·효심복지 실현

임실군(군수 심민)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심복지 실현을 위해 "고령·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군에 따르면 대령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농업부가 실시한 2017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임실군 주관으로 남원시와 순창군이 협력하고 23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2019년까지 전문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농기계작업단 운영을 위한 사무원, 농작업 대행 전문인력을 채용 완료하고, 26일부터 농가들로부터 농작업 접수를 시작하여 4월 2일부터 작업 대행을 실시한다.

농작업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농가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업소득 증대에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영농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농작업 대행을 원하는 "70세 이상이면서 0.5ha 이하" 경작농가에서는 (사)임실남도농인력지원센터 농기계작업단(642-7082)으로 접수하면, 상담을 통해 작업일정을 확정하여 농작업을 대행하게 된다.

농작업은 2명씩 2개조로 운영되며, 발작물 위주로 로터리·두둑·비닐피우기를 일괄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5월부터는 드론방제기를 이용한 방제작업은 물론, 농가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작업유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 2030청년농업인반 운영

순창군이 갈수록 노령화되어가는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젊은 농업인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는 20~30대의 젊은 영농인들을 발굴하고, 젊은 농업인 모임체 조직육성과 영농 정착에 대한 마인드 함양을 목적으로 '농업농촌혁신대학 2030청년농업인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연안대 채상헌 교수의 '청년농업인 정책 및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상반기기를 시작했다. 하반기 교육은 상반기 교육을 바탕으로 한 심화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의는 매주 금요일 농업기술센터와 각 읍면의 현장농가에서 이론수업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며, 교육 뿐만 아니라 전문 강사들에게 현장전문 경영지도를 받게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경찰서-보건의료원, 업무협약

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는 지난 23일 임실군보건의료원과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노인 지문등록, 사전등록 강화 등, 치매노인 발생시 신속 발견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경찰서 2층 서장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은 임실경찰서장을 비롯해 직원들과 보건의료원장, 의료지원과장, 치매안심센터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하였다.

주요 협약 내용은 관내 치매노인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지원과 지속적 보장이 필요하여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노인 지문등록 사전등록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상습실종자 치매노인 중 배회감지기 보급대상자 선정 및 보급, 실종 치매노인 발생시 신속발견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합동수색 실시 등이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옷칠 목공예대전 시상식

제2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 23에 남원예촌 '사랑마루'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는 금년 수상자 총45명에 대한 시상과 수상작품에 대한 관람의 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제2회 대전은 최고상인 대상의 훈격을 국무총리상으로 승격하는 등 전국 옷칠 목공예인의 큰 관심을 받았다.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김종민씨의 '국화무늬 호리병'으로 우리 전통문양인 국화문을 호리병 형태에 세밀하게 꿰뚫어넣고, 정교하게 마감하여 화려하면서도 동시에 우아한 아름다움을 표현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발효식품산업지원 공모사업 선정

성가정식품 등 3개소



순창군이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18년 발효식품산업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발효식품산업의 선두주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곳은 발효미생물 보급기관으로는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발효미생물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업체로는 농업회사법인 순창성가정식품(주)과 유니버설 팜스밀(주)이라고 밝혔다.

발효식품산업지원 공모사업은 발효미생물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과 미생물을 활용해 신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와 연계 협력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억원이 투입된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는 2억원이 증액된 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한다. 참여 기업 또한 전국에서 신청을 받아 미생물보급기관 1곳과 전통발효제조업체(장류 및 식초 생산업체) 10곳을 최종 선정했다.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발효미생물 공급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명성을 전국에 알리고 있으며, 지난해는 전라남북도 5개 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했었다.

올해는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에서 선정된 10개의 식초·장류 제조업체가 필요로 하는 미생물을 제공하고

신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제품 개발 업체로 선정된 순창 성가정식품은 청국장 발효시 냄새가 나지 않는 고초균을 활용,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간편 편의식 목은지 청국장 제품을 생산 판매할 계획이다.

또 다른 선정 기업인 유니버설 팜스밀에서는 고초균과 황곡곰팡이, 식·의약 곤충인 밀웬 분말가루를 활용한

기능성 된장과 간장 신제품을 개발하여 100억 규모의 장류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군 김재건 장류사업소장은 "농식품부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은 그 동안 연구개발사업으로 발굴된 순창군 토종발효미생물 가치의 재조명과 정제기에 접어든 전통발효식품산업에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관광지 모노레일 설치사업 검토·추진

남원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꿀 모노레일이 남원관광지에 설치된다. 남원시는 지난 23일 공한투원과 춘향테마파크, 함파우 유원지 등을 연결하는 약 2.3km의 남원관광지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모노레일의 개발여건 분석, 노선선정, 수요추정 등 최적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는 이미 수 차례 보고회를 통해 모노레일 구동형식과 캐노피의 장·단점 분석, 국내 설치사례를 통해 남원시 도입방안, 모노레일 설치노선 종합검토, 수치분석, 관리 및 운영방안 등 모노레일 설치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

최근에는 남원관광지 내 상가주인과

시민들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남원시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뛰어난 자연경관을 조망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모노레일 설치노선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쥘트랙 등 체험시설과 모노레일 사업노선 주변 볼거리 제공을 위한 다양한 보완사업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추진하고 있는 관광단지 모노레일 사업이 완공되면 공한투원으로 집중되는 관광객을 춘향테마파크와 함파우 유원지로 유입시켜 관광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관광객 재방문과 체류시간이 늘어나 관광단지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버머티 지역 휘트니스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국제대회 디슈 참가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국가대표 코치 역임	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1/NSL2) 휘트니스	